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Busan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 시민넷

제 91호
2014년 1월 22일

**주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63-1 6층 미디어공간 봄 **TEL** 051. 802. 0916 **이메일** buun1@hanmail.net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발행인** 윤영태

Contents

02 회원이 전하는 새해덕담
03 언론이슈
2013년 언론 결산
04 언론비평
철도노조 파업보도
05 활동소개
민언련 송년회 외
06 만나러갑니다
문창현, 강필희 회원
07 회원활동/ 새 회원소개
08 그림세상/ 고맙습니다

## 힘껏 내달리는 청마의 패기로 살아보자!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0년 전, 그 갑오년엔 농민들이 일어나 봉건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구하려 했다지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빛나는 역사가 숨쉬는 갑오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도, 주부도, 고등학생도, 노동자도, 농민도 안녕하지 못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대, 오늘 이 갑오년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우리 부산민언련은 스무살 청년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지역사회는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부산의 변화를 꿈꾸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담으셨나요?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꿈꾸는 소원 다들 이루시고요, 부산민언련과 함께 꾸는 꿈도 손잡고 일궈 나가요. 함께 '안녕'을 꿈꿔요. 잘 먹고 잘 살아요.

**2014 부산민언련 정기총회**
정기총회에 참여하셔서
부산민언련의 2014년을 열어주세요.
**일시** 2월 13일(목) 저녁7시 **장소** 부산민언련 강당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진 속 사람들은 부산민언련 사무국 복성경 부대표와 박정희 사무국장,
그리고 민언련과 함께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는 **'미디어 공간 봄'**의 미디어 활동가들입니다.

# 회원이 전하는 새해 덕담

부산민언련 회원님들이 새해맞이 희망과 각오, 덕담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진** 회원

해는 매일 뜨고 지지만 우리는 해가 바뀐다며 새삼 의미를 부여합니다. 구획하고 매듭짓는 것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봐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난 한 해가 힘겨웠던 모든 분들에겐 밝은 내일이, 보람있고 뿌듯했던 분들은 늘 그런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건강들 하시고, 복 많이 받고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차름** 회원

'기름진 생존을 버리고 소박한 자유인이 되라' 제가 존경하는 홍세화 선생님 1월 9일 강연에서.

**신재희** 회원

2014년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기분 좋은 말이 우리들 삶에 희망찬 말입니다. 민언련 회원님들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강영익** 회원

우리 삶이 해군지마가 아닌 익군지마의 삶이 되도록 정진해야..
* 해군지마 - 무리를 해치는 말, 조직해 해를 끼치는 사람

**최용국** 회원

'아침엔 조중동 낮엔 종편 밤엔 지상파'로 둘러쌓인 언론 조건에서 참 언론운동은 그 어느때보다 소중합니다. 민언련 회원 여러분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언련 화이팅!

**장현수** 회원

뜻하는 바를 알고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201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지만 때론 즐거움과 고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임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메마른 세상에 촉촉한 좋은 소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장미영** 회원

지난 해는 말 그대로 몰상식이 상식을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한 해였습니다. 언론마저도 권력에 굴종하며 칼춤을 추어댔습니다. 올해는 '상식'이 '몰상식'을 이기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의 비판과 견제'라는 당연한 상식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르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노정현** 회원

민주 언론의 소중함을 온 몸을호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민언련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민주언론 되찾는 그 날까지 투쟁!

**김지현** 회원

새해는 사실, 공정, 진실, 품위를 지키지 않는 쓰레기 같은 언론사 때문에 열받는 일 없기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김해몽** 회원

갑오년에는 시민언론, 주민언론이 꽃피는 한 해 만듭시다.

**류창섭** 회원

나이 한 살의 무게 잘 이겨내세요~

**조소희** 회원

2013년 새해 나의 어머니 김준희 여사님♡ 행복합시다.
사랑합니다. ^~^

**조보고파** 회원

올 청마해의 푸른 정기를 받아 더 높이 비상하는 민언련이 되길 바랍니다. ♥♥ 민언련 홧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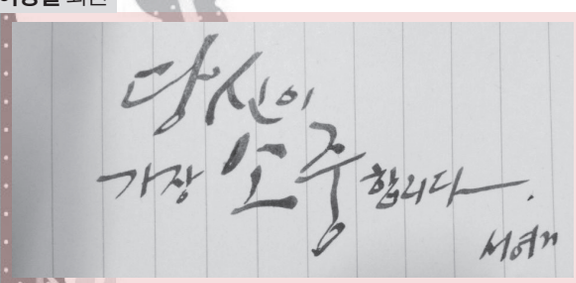
**구자문** 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권력과 언론에 대한 감시와 날선 비판, 견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금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진로** 회원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면서 소하고도 통하는 소통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성열** 회원



# 언론이슈

# 2013년 언론을 돌아보다

**지난 한 해 언론은 한마디로** '안녕하지 못하다' 였습니다. MB 시절 해직언론인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종편을 물론이고 KBS, MBC 등 언론의 공정성은 '실종' 상태였고 이를 감시해야할 방송통신심의위는 1년 내내 정치 심의 논란만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2013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해직자 복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성과없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언론계 현안 해결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계 현안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8개월 만에 활동이 종료됐고 , 언론 해직자 문제를 다뤄야할 국민대통합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는 YTN 등 언론사 사찰의 진실에 접근도 못한 채 12월 해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 인식을 보여준 한 해였고, 결국 해묵은 언론계 현안은 2014년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기존 언론 실종**

2013년 한 한해를 뒤덮인 이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광범위한 국가 개입이 드러났으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윤석렬 검사는 징계를 받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슈를 양산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조중동 신문과 종편의 노골적인 편파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MBC, KBS, YTN은 축소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에는 무슨일이?' 편은 6월23일 방송을 앞두고 통편집됐고, YTN에서는 같은 달 20일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 단독보도가 오전 리포트 뒤 방송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KBS '불방, 징계, 교체' 프로그램 수난시대**

정권이 바뀌었지만 KBS • MBC는 낙하산 사장은 건재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자율성 침해는 여전했습니다.

KBS 길환영 사장 1년 동안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 불방사태, △자사보도 비판한 〈TV비평-시청자데스크〉 관계자 징계, △KBS 〈진품명품〉 진행자 교체 등이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과 탄압이 시사프로그램에서 교양·예능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MBC '3대 특종' 시청자 조롱**

MBC 역시 김종국 사장이 새로 취임했지만, '김재철 시즌2'임을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정치 이슈에 눈감고 정권 편향적, 연성 아이템으로 일관한 뉴스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MBC뉴스 3대 특종'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알통크기에 따른 보수 • 진보 구분'와 함께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 '김정일 눈썹'이 그것입니다. 저널리즘을 포기한 MBC에 국민들은 신랄한 풍자로 대응 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등 독립언론, 손석희 <뉴스9> '약진'**

기존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뉴스타파 등 대안 언론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는 5월22일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갖고있는 한국인 명단을 특종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정원 직원 IP를 추적해 개입 실태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외에도 기성 언론사들을 뛰어넘는 탐사보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보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고, 또다른 독립언론 국민TV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손석희 사장 진행 체재로 정비한 JTBC 〈뉴스9〉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특종을 보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히려 '편파 심의'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김현희 대담〉 △TV조선 〈뉴스쇼 판〉 박원순 시장 '종북' 주장한 정미홍 출연 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견제시' 로 제시한 반면, △MBC 〈무릎팍도사〉 4년 전 '안철수 편'의 뒤늦은 심의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자사 국정원 보도 비판에 대한 제재 △KBS 〈추적60분〉 국정원 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편파심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JTBC 손석희 〈뉴스9〉에 '경고' 의견을 냈고, CBS 〈김현정 쇼〉에 대해선 중징계를 예고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물리는 전위대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KBS이사회 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

KBS 이사회가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여당 추천 이사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보도 공정성·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 마련 △ 수신료 사용 투명성 제고 등을 주장해 온 야당 추천 이사들을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KBS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없이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민언련 등 언론단체들은 새해부터 수신료 반대 활동에 벌일 예정입니다.

---

※ 한국기자협회보 선정 언론계 10대뉴스, 미디어스 미디어결산, 미디어오늘 기사 인용 및 참조

# 언론비평

## 철도노조 파업 보도 '왜'는 없었다

'민영화 쟁점' 분석 외면… 물류대란 시민 피해 강조

사무국

○ 모니터기간 : 2013년 12월 1일 - 20일
○ 모니터대상 : 국제신문, 부산일보

**22일간 진행된 최장 기간** 철도 노조 파업이 끝났다. 이번 철도 파업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서발 KTX 분리가 철도 민영화 첫 단추로 인식되면서, 철도공사의 내부 정책을 넘어서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조는 악조건 속에서도 '철도 산업 발전 소위' 설립이라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파업을 종료한다. 철도 파업은 비록 다양한 평가가 오가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환기와 노동 문제를 정치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하지만 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파업의 쟁점과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불법파업' '파업피해' '노동귀족' 등 여전히 반노동적 보도를 쏟아냈다. 부산의 지역언론 역시 이러한 부정적 보도 관행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 민영화 쟁점 없는 철도 파업 기사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들은 '왜 이 사건이 발생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철도 파업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들과 분리되었던 이전 파업과 달리 이번 철도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서발 KTX 분리 문제 즉 '민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통해 제기한 '수서발 KTX 분리'의 의미와 민영화 의혹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해야 했다.

하지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심층 기사가 전무했다. 뿐만 아니라 사설에선 '민영화' 등 쟁점을 짚기보다 묻지마식 '대화 촉구' '파업 철회'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제신문은 15일 사설에서 "민영화를 안 한다는데 가능성만 외치며 파업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고, 부산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정부와 코레일도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우려해 국민의 발과 물류를 볼모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 '파업 피해' 보도하기 바쁜 언론사들

노동 분야 보도에서 반노동적 기사의 대표적 유형은 '시민 불편'과 '업계 피해'를 부각하는 '파업 피해' 보도라 할 수 있다. 이번 철노 파업의 경우도 '시민 불편'과 '업계 피해'를 부각하는 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표1, 표2 참조). 우선 언론사들은 파업 첫 날부터 '정부는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산일보, 9일)'라며 파업 피해를 우려했다.

[표1] 국제신문, 부산일보
철도 파업 관련 보도 분류 (12월 1일 -20일)

| 기사분류 | 국제신문 | 부산일보 |
|---|---|---|
| 파업 진행 상황 및 정부 대응 | 5 | 12 |
| 파업에 따른 피해, 우려 | 5 | 7 |
| 민영화 논란 | 1 | 1 |
| 기타 | 2 | 1 |
| 총 보도건수 | 13 | 21 |

파업이 본격화되는 10일 이후부터는 '파업 피해' 기사를 연속적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단순히 '코레일의 열차운행 현황표'만을 참조하여 감소된 '열차 운행률'을 릴레이식 보도하는데 급급했다. 예를 들어 13일 기사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KTX가 내주 초부터 감축운행에 들어가 시민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화물열차 수송률은 파업 닷새째인 13일 30%대를 넘지 못해 물류대란이 코앞에 닥쳤다"(국제신문)라고 보도하였으며 기사 말미에는 파업 기사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아직 닥치지 않은 '피해'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코레일 측은 파업 5일이 지나면 물류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기관사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에도 피로도 누적 등으로 5일이 지나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부산일보, 10일)'와 같이 파업 피해 상황을 코레일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

이처럼 국제신문, 부산일보 모두 '민영화 반대'라는 철도 파업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반면 철도 파업이 시작되서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유예되는 '물류대란'의 전망은 파업에 부정적 편견을 조장했다. 불편을 겪는 시민, 피해를 입은 기업만이 여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수많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또 하나의 여론이다. 정치권만 소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언론 역시 배제된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 표1 보도 분류는
(사)민언련 철도파업 관련 방송모니터 분류표 참고

# 활동 소개

## 벌써 20년? 추억 나누고 성인식 맞이로 화기애애

**12월 26일**
**부산민언련 송년회**

**'2013 부산민언련 송년의 밤'**이 12월 26일(목) 저녁 사무실 근처 단물곤물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영태 대표를 비롯하여 김재경 전 대표,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이진규 회원과 오랜만에 참석한 장미영 회원, 예비 회원 이예지 어린이까지, 그리고 같은 공간을 쓰는 미디토리 소속 회원부터 김해와 양산 등 멀리서 오신 회원님들까지 모두 스물두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함께 한 회원들이 지난 한해 안부와 새해 덕담, 그리고 민언련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2014년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을 맞아 준비 책임을 맡은 20년기념사업 추진위 장길만 공동위원장이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념사업은 크게 20년 역사를 정리하는 백서 발간과 창립기념일인 4월 30일 기념식과 기념 특강, 그리고 앞으로 민언련 활동 방향을 고민하는 비전모색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은 20년 기념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함께 준비해나갈 것을 다짐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될 20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민언련 활동단신

### 2014 부산민언련 정기총회 개최 2월 13일(목) 민언련 강당

2014년 부산민언련 정기총회를 2월 13일(목) 저녁 7시 부산민언련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표선출과 2013년 사업평가와 감사보고, 2014년 사업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정기총회는 여러분의 참여로 개최됩니다.
총회에 참석하셔서 회원 여러분의 손으로 부산민언련 대표와 활동계획을 확정해 주십시오.

### KBS 수신료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12월 12일(목) 10시 KBS 부산총국 앞에서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의결 KBS 이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단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 전국민언련대회 해운대서 열려 수신료 인상 등 언론쟁점 대응 논의

전국 민언련 활동가들이 12월 12일~13일 부산 해운대 게스트하우스 레움에서 모여 지역 현황과 종편 재심사·수신료 인상 등 언론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중

지난 한 해 변함없이 후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후원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께서는 부산민언련 홈페이지(bssiminnet.or.kr) 공지란 또는 주소 www.ccdm.or.kr/main2/receipt2013/receipt.asp로 들어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받으실 회원님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51-802-0916)

### 부산시민연대 신년 하례식 참여 6·4 지방선거 시민정책 제안 등 활동 계획

1월 7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민연대 대표 및 활동가들이 민주공원에서 참배와 신년하례를 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연대는 부산경실련, 부산환경련, 부산YMCA 등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설 연대단체로, '생명·자치·평화'가 실현되는 부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허남식 시정 10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공약을 제안하는 등 자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큐를 만들래요"

## 문창현 회원

**2013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독립영화인'을 수상한 독립다큐멘타리창작공동체 〈오지필름〉의 대표 문창현 회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단체 회원이 된 것은 3년 전으로, 부산 MBC 라디오제작지원팀 활동을 하게되면서 복성경 부대표님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회원 가입 이후 민언련이 보내주는 모니터 결과를 보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의 문제를 알수 있게 됐고 특히 대선보도 모니터는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시스터〉, 〈변호인〉 관람 등 회원 행사와 KBS 수신료 인상 반대 1인시위에도 참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입 첫 해 참석한 '송년회'라고 하는데, 비로소 민언련 회원임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답니다. 그 이후로도 민언련은 문 회원님이 유일하게 가입한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다큐 감독으로서 문창현 회원의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다양한 영화제 자원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독립영화, 그 중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다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선배들과 의기투합해 만든 오지필름에 합류해 지난 해 독립다큐 감독으로서 고민을 담은 첫 작품 〈나와 나의 거리〉를 세상에 내놓았고. 지금은 4대강 공사로 수몰되는 자신의 고향 마을 영주 이야기를 담은 〈고향의 봄〉을 만들고 있다 합니다.

또 그가 대표로 있는 오지필름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오랜시간 함께하며 영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현장에서 언론의 문제, 힘을 절감했답니다. 바로 자신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불과 2~3시간 후 포털을 통해 기사화 되는데 많은 언론이 진실보다는 '갈등과 폭력'을 과장해 주민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걸 보면서 언론의 힘을 절감했다고요. 또 이런 언론을 보면서 자신 또한 다큐 감독으로서 현장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민언련의 언론운동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다큐로 사회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미디어 운동을 하는 문창현 회원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 감독이 되고 싶다는데요. 그 목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모니터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그 약속 지켜주세요.

# "우리는 MB가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 강필희 회원

강필희 회원은 19년차 기자이며, 현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 위원장입니다. 강필희 회원이 부산민언련을 처음 만난 것은 2010년 가을인데, 언론장악저지 지역공동대책위 활동에서 입니다. 언론노조와 민언련이 만나 MB의 언론장악 저지이라는 공동 과제 앞에 똘똘 뭉쳤던 것이 새삼 기억나는데요, 당시 '독수리 5형제'라 부르며 함께했던 타사 노조 위원장들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강위원장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4년간 MBC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 편집권 독립 투쟁 등을 벌이며 회사와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늘 흔들림없이 꼿꼿한 모습니다.

강필희 회원은 주요한 '사건'과 '역사'의 현장에 늘 있을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기자가 되었는데요,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편집부, 생활부 등 웬만한 부서는 다 거치며 19년차 기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생소하던 노동조합 일을 하게 됐는데, 기자는 조직에 속해 있지만 '개인' '섬'과 같은 성격이 강해 혼자서만 잘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노조는 '팀플레이'여서 혼자서만 앞서 달려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 몰라 초반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4년이 되니까 조합원과 보조를 맞추고 설득하며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지역 언론, 특히 신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강 위원장에게 극복 방안은 없을지 들어봤습니다.

강필희 회원은 지역 신문을 지원해주는 제도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문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독자들이 지역 신문에 관심없는 것 같지만 함양 미달 기사인지, 깊이 있는 좋은 기사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면서, 독자를 설득하고 지역 신문에 대한 관심을 되찾으려면 결국 공정하고 깊이있는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고요.

부산민언련에 대해서는 기자로 있을 때는 잘 몰랐고 지역 신문을 비판만 하는게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 정도만 있었는데, 노조 일을 하면서 모니터 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활동 하는 것을 보며 지역 언론에 대한 애정을 많이 느꼈다며,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더 활발히 활동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필희 회원이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 일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기자로 돌아가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허은영**님이 회원이 되셨습니다. 허은영 님은 현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시민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열심입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복성경 부대표와 함께 실습활동을 하면서 우리단체를 알게 됐는데요, 부산지역의 미디어교육이 더욱 활성화 됐음 좋겠다는 바람과 우리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 반갑습니다.

**양승동**님이 회원이 되셨습니다. 양승동님은 지난해 하반기 KBS부산총국 편성국장으로 부임하며 부산으로 오게 됐는데요, 최용수 회원님의 추천으로 우리단체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양승동님은 2007년 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KBS 사원행동 대표, PD연합회 대표를 지내며 공정방송 지키기에 힘써왔습니다. 양승동 회원 부임을 계기로 '시사인부산'과 같은 멋진 시사프로그램이 부활하길 기대해봅니다. 반갑습니다.

**구자문**님이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단체 교육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우리단체에 권력과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를 당부해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백승기**님이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백승기님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되어주셨는데요, 대전민언련 회원이셨는데 직장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부산민언련에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장은 바쁘셔서 회원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지만, 여유가 생기면 참여도 하시겠답니다. 고맙습니다.

##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이승환** 회원님이 저자가 됐습니다. 이승환 회원은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1년에 걸쳐 <경남의 재발견> 기획면을 만들어 왔는데요, 연재가 끝난 후 2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경남의 재발견>은 경남 곳곳이 품은 매력적인 자산을 좇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작업은 어떤 면에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자가 직접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승환 회원님은 페이스북에서도 <경남의 재발견>을 열렬히 홍보하고 있으니 경남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www.facebook.com/seung.h.lee.98)

**이성열** 회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국제 풍자 만화 & 사진전 <오!밀양>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의 풍자 만화가, 밀양의 소식을 꾸준히 사진으로 알려온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밀양문제를 환기시키는 행사였는데요, 이성열 회원님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작품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1월 초반에 열렸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뜻깊은 활동이어서 작품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승훈** 회원이 오지필름을 그만두고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지역 미디어 활동가로서 함께 활동해왔는데, 잠시 접게 되어 아쉽습니다. 서울에서도 역시 영상을 만들고 미디어교육 활동을 할 예정이라니, 많은 경험 쌓고 뜻하는 목표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알찬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미디토리에서 일하며 지역에서 미디어활동가로 활동했던 **박경배** 회원님이 드라마 PD라는 꿈을 찾아 서울로 떠난 지 한 계절 만에 TVN 제작 PD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새내기로 시작하지만 좋은 작품 만드는 감독이 되길 응원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세상

그림 **류창섭**

# 고맙습니다

**2013년 10월, 11월, 12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가경욱 감진숙 강동민 강병구 강승화 강아란 강영익 강필희 공진성 곽중교 구지영 권성하 권영란 권용협 권혁근 권호일 길재섭 김경준
김경화 김기식 김기종 김남지 김다혜 김대영 김대철 김동기 김명혜 김병국 김새별 김석환 김성연 김성우 김성헌 김 숙 김아영
김어진이 김영민 김영준 김용범 김 욱 김유진 김은민 김재환 김정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훈 김정희 김종열 김종옥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1 김지현2 김지훈 김진숙 김진주 김차름 김철기 김태진 김하원 김해몽 김현지 김형욱 김형천 김형철 김홍식 남원철 남정숙
남태수 노무법인나래 노정현 노현희 도상형 독고지은 류광종 류수정 류위훈 류은하 류창섭 문소영 문정임 문종대 문지용 문진효
문창현 민은희 박경배 박동혁 박미순 박봉환 박상조 박순옥 박순정 박시현 박영달 박재진 박재혁 박정민 박정희 박주희 박지선 박태수
박태순 박홍원 배기연 배일진 배재한 배혜래 백미화 복성경 서용순 서은숙 서주영 성민영 성은진 성창훈 손영호 손주성 손현익 송인섭
송태연 신금아 신병률 신은제 신재희 신정식 신태섭 신현숙 심재훈 안명환 안병규 안상훈 안은숙 안재영 안지민 안지숙 양민정 엄상준
염창현 예종일 오보경 오정무 오정숙 오지은 오창호 오혁진 옥서연 왕수봉 원경덕 유시호 유원경 유행현 윤대원 윤명숙 윤성효 윤순정
윤영태 윤태연 윤택근 이경균 이경미 이경숙 이경식 이경태 이경희 이근호 이동일 이두원 이명곤 이명숙 이미미 이병주 이상기 이상진
이상희 이샛별 이설강 이성열 이승렬 이승신 이승환 이승훈 이아인 이영란 이영우 이오상 이원구 이원규 이일수 이지윤 이진규 이채언
이철재 이행봉 이현우 이혜숙 이호진 이희길 임대현 임상민 임숙경 임순평 임언수 임윤희 임은정 임현주 장길만 장동범 장미영 장선화
장익진 장현수 장호출 장홍태 전대식 전미경 전미령 전유남 정경문 정경순 정경훈 정기평 정대원 정명수 정문모 정상도 정세화 정수진
정숙희 정순영 정영근 정우윤 정은주 정은해 정자연 정재성 정재훈 제봉득 조경숙 조기종 조범수 조보고파 조봉권 조소희 조재형
조항제 조희란 주명혜 주은희 주정림 차동엽 차진구 채 백 최동섭 최상원 최수미 최수영 최용국 최용수 최은정 최종숙 최지수 최진혁
최창영 최태경 최한주 최환웅 하미정 하성창 하은진 하인상 한현욱 허문화 허민경 허소희 허지안 홍유선 황대진 황상현 황영주 황지연

**연회비 납부해주신 회원**

김상현 김정우 양승동 이범수 이진로 박지선 복성경 부산MBC노조 안병규 윤영태 정수진 정숙희 정은주 차진구 최용국

**부산민언련은 정부 운영보조금 없이 후원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미디토리 meditory

**영화제작** 인쇄디자인 **커뮤니티미디어지원**

www.meditory.net
tel. 070.4349.0910
email. meditory@meditory.net

**부산민언련 회원이 되어 주세요!**

1994년부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과 언론개혁의 한 길을 걸어온 부산민언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사회,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은 그 사회의 거울인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그 시작은 참여와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100-019-186241 (예금주 부산민언련)